

# 개념사의 학문적 구성과 사전적 기획 사이에서\*

—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을 중심으로 —

이진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 논문분야 서양사, 역사이론

## ■ 주제어 개념사, 코젤렉, 개념사 사전, 역사적 기본개념, 진보, 문명과 문화

## ■ 요약문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내는 언술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한 시대의 경험과 입장이 녹아 있으며, 처음 만들어진 이래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해 왔다. 이에 따라 연구는 언어나 명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론적 역사를 추적하는 일과 그 대상이 만들어져 실제로 진행된 역사의 탐구 사이를 왕복하는 일이 된다. 즉 개념사 연구란 한 개념이 겪는 진행사(Sachgeschichte)와 의미사(Bedeutungsgeschichte)를 통시적(diachron) 차원과 공시적(synchron) 차원을 함께 엮어 내어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근대의 정치-사회적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사전으로 출간하는 계획은, 1963년 오토 브룬너, 베르너 콘제, 라인하르트 코젤렉 등 하이델베르크 대학 역사학부의 '근대 사회사 연구모임'(Arbeitskreis für Moderne Sozialgeschichte)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사전기획의 기본의도는 "유럽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오늘날까지 걸쳐 내려오면서 근대로의 전환을 증언하고, 이를 규정하거나 이들 의미내용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고, 그런 한에서 그 의미들이 변화되는 그런 개념들을 파악하는 일에 둔다"는 것

\* 이 논문은 2011년 5월 27일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주최 <제2회 코젤렉 개념사 사전 번역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적절한 코멘트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접수일(2011.6.14), 심사 및 수정(2011.6.22), 게재확정일(2011.6.23)

이었다. 그리하여 첫 성과물인 제1권이 출간된 1972년 이래, 25년이 지난 1997년, 마침내 모든 기획이 종료된다.

18세기 중반부터 개념의 고전적 지형에 근본적인 의미변화가 진행되었고, 옛 단어들은 새로운 의미내용을 얻게 되었으며, 그 이후 궁극적으로 모든 개념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연과 역사, 세계와 시간에 대한 변화된 관계, 즉 '근대(Moderne)'의 시작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를 코젤렉은 '자텔차이트(Sattelzeit)'로 표현하였다.

최근 한림대에서 번역 출간된 일련의 개념사 사전 시리즈 중에서 코젤렉의 '자텔차이트'라는 가정을 가장 충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단연 '진보'(2010)와 '문명과 문화'(2010)이다.

## 1. 문제의 제기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자신의 한 글에서 “개념이 역사적으로 이해되듯이, 역사는 그 개개의 개념들을 통해서 해석된다: 개념사는 개념과 역사의 수렴을 테마로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간결하게 개념사를 정의내린 바 있다.<sup>1)</sup> 그에 따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경과나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들은 다양한 역사적 움직임이나 변화와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념의 형성은 철저히 경험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개념들을 매개하는 것은 언어다.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언술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한 사회나 시대의 경험과 입장이 녹아 있으며, 그것은 의미는 그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이에 따라 개념사 연구는 언어나 명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론적 역사를 추적하는 일과 그 대상이 만들어져 실제로 진행된 역사의 탐구 사이를 왕복하는 일이 된다. 즉 한 개념

1) Koselleck, Reinhart(1967), “Richtlinien für das Lexikon politisch-sozialer Begriffe der Neuzeit,”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11/1967, p.85.

이 간직한 의미사(Bedeutungsgeschichte)와 진행사(Sachgeschichte)를 통시적(diachron) 차원과 공시적(synchron) 차원을 함께 엮어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sup>2)</sup>

유럽에서의 개념사 연구작업을 영미권에 소개한 멜빈 릭터는 “개념사 연구자들은 굳건하게 확립된 역사적, 철학적 방법론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변용함은 물론 새로운 기법을 고안해 냈다.…이제 그들의 작업은 철학은 물론 정치, 사회적 이론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엄밀한 역사연구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지금까지의 개념사 연구업적을 평가하였다.<sup>3)</sup>

개념사 연구는 1963년 가을, 오토 브룬너(Otto Brunner), 베르너 콘제(Werner Conze),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그 밖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역사학부의 ‘근대 사회사 연구모임’(Arbeitskreis für Moderne Sozialgeschichte)을 중심으로 근대의 정치-사회적 기본개념을 사전으로 출간할 계획을 논의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편집회의를 통하여 밝힌 사전기획의 기본의도는 “유럽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오늘날까지 걸쳐 내려오면서 근대로의 전환을 증언하고, 이를 규정하거나 이들 의미내용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고, 그런 한에서 그 의미들이 변화되는 그런 개념들을 파악하는 일에 둔다”는 것이었다.<sup>4)</sup>

그리하여 총 여섯 권으로 계획된 사전편찬 기획을 위하여 ‘근대 정치-사회 개념사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 작성된 이래 30년, 그 첫 성과물인 제1권이 출간된 이래 25년이 지난 1997년, 마침내 모든 기획이 종료된다.<sup>5)</sup>

2) Brunner, Otto/ Conze, Werner/ Koselleck, Reinhart(Hg.)(1972),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d. 1, Stuttgart, Einleitung, XXI.

3) 멜빈 릭터,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소화, 26쪽.

4) Koselleck, Reinhart, “Richtlinien,” p.82.

5) Brunner, Otto/ Conze, Werner/ Koselleck, Reinhart(Hg.)(1972~1997),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8 Bde. in 9 Teilen, Stuttgart.

단지 개념이 갖고 있는 언어적, 역사적 계보학을 넘어 체계적인 언어분석과 담론분석에 집중하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 기본개념〉 항목들은 정치, 사회적 역할을 하는 어휘의 개념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해야 할 필수자료”가 되었으며, “개념의 의미변화를 탐구하는 방법론, 규모, 전문적 기법으로 인하여 〈역사적 기본개념〉은 이미 필수불가결한 참고서가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sup>6)</sup> 이 프로젝트 진행의 성공 여부는 단지 각 표제어들을 담당했던 필자들의 개인 역량에 달렸다기보다는, 무엇보다 전체 기획의 구성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들, 지금까지 축적된 개별 개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기반, 그리고 개념 형성과 그 의미변화 탐구에 기반이 될 다양한 자료들의 뒷받침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학계에서의 개념사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 증가는 이제 한국 사회의 개념사 연구단계가 “변화하는 세계를 품으려고 허겁지겁 전파의 중심국들이 재빠르게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대신에, 21세기 한반도에 맞는 개념들을…조심스럽게 궁리”하는 단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징표일 것이며,<sup>7)</sup> 한국에서의 개념사 관련 기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일정 정도 축적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체계화의 시작단계에 있는 ‘한국 개념사 총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부딪힐 부족함과 난관들 또한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멜빈 릭터도 자신의 분석에서 〈역사적 기본개념〉 사전 편집자들이 애초에 사전 기획을 위해 설정했던 기준들이 실제 사전 편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다.<sup>8)</sup>

학문적 실천과 방법의 경우, 시작이 언제나 그 궁극적 형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개념사와 같은 새로운 학문적 실천은 일단 연구강령을 정하고 학자들이 적용하게 될 판단 기준을 공개선언하고 나면, 그 연구강령은 집필자 명단에 오른 연구자는 물론이고 편집자 자신들까지 규정하고 변화시킨다. 〈역사적 기본개념〉 편집자들의 경우, 그들의 작업을 전개시킨 노선은 애초에 공언한 원칙보다 오히려 4반세기 동안 그들의 기념비적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진화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바가 더 컸다.

그렇다면 코젤렉을 비롯한 〈역사적 기본개념〉 기획자들의 애초의 의도가 얼마나 자신들의 글들을 통하여 반영되거나 적용되었으며, 혹은 (불가피하게)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은 유용한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기본개념〉이 의도했던 역사쓰기의 실천은 이들이 기술한 개별 개념들 속에 녹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우선 코젤렉과 그의 동료들이 상정했던 〈역사적 기본개념〉 사전의 구체적인 기획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코젤렉 사전들을 〈역사적 기본개념〉이 설정했던 ‘기본지침’, 그중에서도 특히 소위 ‘자텔차이트’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 그 성과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6) 멜빈 릭터, 앞의 책, 39면. 김학이는 코젤렉의 개념사가 “한편으로는 개념의 통시적 의미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목적론적인 사상사를 극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이 역사적 현실의 지표와 요소로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해 냄으로써 자칫 몰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회사를 교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93쪽.

7) 하영선, 2009, “변화하는 세계와 개념사”,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5쪽.

8) 멜빈 릭터, 앞의 책, 62쪽.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한국개념사 총서’는 지금까지 여섯 권이 출간되었으며, ‘일상개념 총서’, ‘개념소통 연구시리즈’ 등이 지속적으로 출간 준비 중이다. 그 밖에도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소화, 2009);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창비, 2009);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비평, 2011) 등이 출간되었다.

## 2. 코젤렉 개념사 사전의 기획

코젤렉은 두 번에 걸쳐 사전편찬 기획에 대한 ‘기본지침(Richtlinie)’을 작성하였다. 하나는 1963년 브룬너와 콘제, 그 밖의 편집인들과 함께 편찬 작업을 처음 기획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1967년 ‘개념사 문서고(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라는 계간지를 통해 소개된다. 또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10년 후, 즉 1972년 마침내 <역사적 기본개념>의 첫 권이 나오면서 그 머리말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sup>9)</sup> 작업의 목적, 접근하는 방법, 사용될 자료들, 전체의 구분과 서술방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두 지침글은 형식과 길이에서 유사하며, 단지 후자가 각 항목 서술의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다.

개념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코젤렉에 있어 무엇보다 자료상의 언어(Quellensprache)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란 단지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한 수동적인 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많은 개념들은 그 언어적 맥락으로부터 떼어 내기 힘들다: “언어는 가장 중요한 매체일 뿐 아니라, 경험의 가공과 역사적 ‘실재’의 구성에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사료를 통한 개념 분석은 “그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던, 무엇보다 먼저 무언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구에 의해) 마침내 확고한 개념으로 형성되고 이용자들이 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의미분석의 여지는 그래서 그 사료가 비록 통시적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텍스트를 통해 이미 주어진 개념언어들에 의해 제한된다. 그래서 개념사 분석에는 대단한 절제와 정밀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sup>10)</sup>

9) ‘기본지침’에서 1967년으로 예고되었던 첫 권은 1972년 출간되며, 이후 현실에서의 진행은 매 권마다 처음 예상보다 몇 년씩 지연된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몇몇 항목들은 기획의도와 달리 불가피하게 뒤에 놓일 유사한 단어들과 합쳐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음 기획했던 6권은 7권으로 늘어나게 된다.

10) Koselleck, R.(1992),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and 7, Vorwort, V.

즉 사료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절제와 같은 단어라도 과거에 쓰였던 용법과 오늘날의 용법이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정밀함이다.

하지만 목표가 되는 개념을 향해 언어의미사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진행사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기 항목을 쓰는 필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학자들마다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젤렉은 <역사적 기본개념>을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운동을 이끄는 선도개념(Leitbegriffe)”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범위를 “단어의 사용과 그 응용을 통하여 구조나 광범위한 사건 관련성들을 밝혀 낼 수 있는 표제어”로 제한하였다.<sup>11)</sup> 동시에 그것은 “과거의 일어난 일의 정황, 관련성, 과정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며, “역사의 요소와 추진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어야 하였다.<sup>12)</sup>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의 단어들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가 나눈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심이 되는 헌법개념(Verfassungsbegriffe)
2. 정치, 경제, 사회적 조직의 핵심어들(Schlüsselworte)
3. 해당 학문들의 자체적 용어(Terminologie)
4. 정치적 운동들의 선도개념과 이들의 표제어
5. 지배적 직업 군과 사회 계층에 대한 표현물들
6. 이론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큰 핵심개념들, 행위공간과 노동세계를 분류하고 해석해 내는 이데올로기들<sup>13)</sup>

11) Koselleck, R., Einleitung, XIII f.

12) Koselleck, R.(1989), “Begriffsgeschichte,” *Vergangene Zukunft*, Frankfurt/M. p.126.

13) Koselleck, R., Einleitung, XIV. 멜빈 릭터는 사전에 선정된 115개의 표제어를 다시 자기 나름대로 분류하여, 정치적 개념(국가, 주권, 민주주의 등) 56, 사회적 개념(신분, 지위, 시민사회 등) 45, 주의 및 이데올로기(무정부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등) 27, 철학적 개념(자연법/자연권, 허무주의, 자유 등) 21, 역사적 개념(진보, 위기, 비판 등) 20, 경제적 개념

물론 편집자가 자신들의 관심분야와 호/불호에 따라 일정 부분 표제어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일이야 피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선택된 개념들은 역사적 운동의 요소와 지표(Indikator)로 받아들여질 만한, 연구분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들 편집진이 처음 의도했던 바는, ‘근대 정치-사회적 개념사전을 위한 기본지침’이라는 코젤렉의 초기 작업 보고서 제목이 보여 주듯이, “근대 이전 세계의 소멸, 근대 세계의 성립을 개념의 역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연구하는 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시기적으로 170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시간에 집중되었다.”<sup>14)</sup> 코젤렉의 근본 관심은 무엇보다 근대 이후, 즉 근대의 시작 공간에서 분화되는, 혹은 이 지점에서 개념적 단어들이 겪는 공통된 새로운 경험들에 집중한다. 하지만 개념의 어원적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머니즘 등이 함께 끌어들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치적 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른, 혹은 이러한 과정에 해당되거나 그 과정으로 인해 바꾸고 쫓겨나고 자극받게 된 사회적 변혁을 드러내는 개념들이 분석되는데, 사전의 첫 권 머리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선택된 중요 표제어를 구분하였다:

- 1) 산업혁명 이전 시대부터 혁명적 사건과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공간 속으로 들어온 선도개념에 대한 추적(예를 들면 ‘시민사회’,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적 헌법개념 등)
- 2) 이러한 사건들에 해당하는 신개념어휘(Neologismus)에 대한 서술(Cäsarismus, Kommunismus, Antisemitismus, Faschismus)
- 3) 근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개념으로 편입해 들어온 단어들의 의미사 추적(Klasse, Bedürfnis, Fortschritt, Geschichte)<sup>15)</sup>

(작업, 노동자, 노동조합 등) 19, 법적 개념(기본법, 헌법 비상사태 등) 15, 국제정치학 용어(전쟁, 평화, 중립 등) 10개 등으로 구분하였다. 멜빈 릭터, 앞의 책, 84쪽.

14) Koselleck, R., “Richtlinien,” p.81.

15) Koselleck, R., Einleitung, XIV.

개념사 사전 프로젝트에는 작업 전체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하나의 작업 가설이 있다. 그것은 즉, 18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고전적 지형에 근본적인 의미변화가 진행되었고, 옛 단어들은 새로운 의미내용을 얻게 되었으며, 그 이후 궁극적으로 모든 개념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자연과 역사, 세계와 시간에 대한 변화된 관계, 즉 ‘근대(Moderne)’의 시작이 그것이었다.

이 변혁의 시기를 코젤렉은 ‘자텔차이트(Sattelzeit)’로 표현하였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이후 근대로의 세계의 변화는 다음 네 가지 기본 특징을 갖게 된다:

- 1) 사회적, 정치적 개념들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 2) 개념을 채우는 내용들의 시간적 계열화(Verzeitlichung)와 이에 따른 역사적 목적개념의 출현
- 3) 이데올로기화, 보편화, 추상화의 경향
- 4) 언어와 일상개념들의 정치화(Politisierung)와 투쟁 개념화<sup>16)</sup>

코젤렉은 이 네 카테고리를 모든 저자와 개념들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상 무망한 작업이었고, 그 스스로도 늘 성공할 수는 없는 가설이었다. 그의 궁극적 지향점은 고대세계의 해체와 근대세계의 생성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역사 속에서 분석하는 데 있었다.

물론 개념사가 그 접근의 방법에서 언어 의미론(Semantik)과 전문용어사(Terminologiegeschichte)가 갖는 방법론을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사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명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념사와 사회사’라는 논문에서 상세하게 개념사 서술의 방법론적 독자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개념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상의 ‘최소한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6) Koselleck, R., Einleitung, XXVII.

과거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당대에 통용되던 개념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갈등 당사자들이 당시 사용했던 언어사용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하여 해명해야만 한다. ... 일차적으로 개념사는 무엇보다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적절한 용어의 용법에 주목하며, 특히 사회적 혹은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표현들을 분석하는 사료비판의 특수한 방법이다.<sup>17)</sup>

그는 이어서 역사-철학적 단어사를 실증주의적 차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면 사료더미 속에 파묻혀 버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개념사에 대한 접근이 단어사(Wortgeschichte)나 진행사(Sachgeschichte), 사건사(Ereignisgeschichte)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념이나 문제사를 지향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구체적인 개념사 연구의 방법으로 (1) 단어의 의미와 그 사회적, 정치적 내용들, 그 뒤에 있는 의미에 대하여 묻기, (2) 통시적 원칙 (diachronische Prinzip)을 통한 역사적 현황 파악, (3) 어의사(Semasiologie)적 측면에서의 접근, (4) 한 표제어 내에 있는 단어(Wort)-개념(Begriff)-사실(Sache) 간의 구분 등으로 정리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개념의 역사적 해명을 위하여 어떤 텍스트들을 분석해야 하는가? 코젤렉은 개념사를 밝힐 사료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 1) 당대의 짧고 순간적인 모습들을 특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원전들, 신문, 편지, 메모, 의회 의사록, 일기나 편지 등
- 2) 사전류, 단어사전, 백과사전, 편람 등 당대에 지속적 정보를 제공해 주던 원전들
- 3) 높은 권위를 간직한 고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통용되며, 늘 다시

17) Koselleck, R.(1989), "Begriffsgeschichte und Sozialgeschichte," *Vergangene Zukunft*, Frankfurt/M. p.114.

18) Koselleck, R., *Einleitung*, XX ff.

꺼내 쓸 수 있는 원전들이 그들이다.<sup>19)</sup>

아울러 그는 사전 속에 원전을 가능한 상세하고 완전한 형태로 인용함으로써, 읽은 이가 직접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럼으로써 개념사에 대한 사료모음집의 역할도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원된 사료의 수는 총 18만 개에 달하며, 이를 다시 정리하여 1997년 두 권의 색인목록을 출간한다. 즉 중형으로 연결된 사료색인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의 개념이 갖는 공시적이며 통시적인 연관관계,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망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시도한 것이다.<sup>20)</sup>

그 밖에도 편집진들은 사전 편집에 있어 몇 가지 글의 체제나 서술과 관련된 원칙들을 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한 표제어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20~60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sup>21)</sup> 한 쪽지의 구조는 시간에 따라 세 시대로 구분함으로써, 중심부 즉 '자텔차이트'에 대한 강조를 분명히 한다. 우선 첫 '도입부(Einleitung)'는 근대와 상반되는 시기로서 고대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시기를 문제설정의 시발점으로 잡는다. 두 번째 '중심부(Hauptteil)'는 근대의 시작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진행되는 개념의 변천사인데, 시간에 대한 통시적 분석(synchronische Querschnittsanalyse)과 공시적 심도측정(diachronische Tiefenbestimmungen)의 상호 직조를 통하여 개념사에 접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망(Ausblick)'은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의 언어적 용태이지만 실제에서는 보통 20세기 전반까지에서 그 흐름의 변화는 멈춘다.<sup>22)</sup>

19) Koselleck, R.(2006), "Hinweise auf die temporalen Strukturen begriffsgeschichtlichen Wandels," *Begriffsgeschichten*, Frankfurt/M. p.96; Koselleck, R., *Einleitung*, XXIV f.

20) 색인목록에는 사료 색인 이외에도 외국어 색인, 법학사료색인, 성경구절 색인, 성명 및 자색인을 한데 묶어 놓았다.

21)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아, 예를 들어 한림대가 기획한 다섯 권의 원문은 각각 문명/문화 96, 진보 73, 제국주의 66, 전쟁 49, 평화 49쪽으로서 처음 예상보다 대부분의 내용이 길어지는 경향이 생긴다. 심지어는 'Volk/Nation'처럼 단일 표제어 분량이 300여 쪽에 가까운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22) 코젤렉 자신도 이러한 3분 구성체제를 엄격히 따르지는 못하였다. 코젤렉은 자신의 '진

기본개념 사전 첫 권의 머리말을 빌려 사전의 기획의도와 개념사 서술 방법의 근간을 소개한 이후, 콘제와 코젤렉은 번갈아 가며 매 사전이 새롭게 출간될 때마다 간단한 머리말을 사전의 앞머리에 덧붙인다.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편집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전체적인 계획과 서술의 방법론에 있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처음 기획된 몇몇 개념들은 완전히 제외되기도 하였고(교회Kirche, 계획Plan), 유사한 개념들 속에 한데 묶어 설명하는 방식(국민 Nation, 질서Ordnung, 경제Ökonomie는 각각 민족Volk, 헌법Verfassung, 경제Wirtschaft와 통합된다)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개념사에 대한 실제 서술을 통해 필자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사료에 있었다. 무엇보다 너무도 다양한 사료들 속에서 그 시대의 대표적 인용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외될 훨씬 더 많은 나머지 사료들을 읽어야 했으며, 처음 계획 속에 상정했던 사료의 그룹, 즉 고전과 사전류, 그리고 각종 신문과 잡지, 편지 등만으로도 분석해야 할 사료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다는 점이였다.<sup>23)</sup>

### 3. '진보'와 '문명과 문화' 속의 '자텔차이트(Sattelzeit)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획은 그 이론적 전제로서 변화로 상징되는 역사 속에서 특정한 한 시대가 있었음을 상정한다. 역사상의 시대는 자텔차이트 이전, 즉 비판적 해설을 통한 단어들의 번역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시대와 자텔차이트 이후, 즉 더 이상 번역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이해되고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자텔차이트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깊이의 탐지를 위한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sup>24)</sup>

유럽에서 옛 단어들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새로운 표현들로 붓물을 이루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독일어권에서는 대략 1750년 이후부터 1850년까지의 시기, 즉 후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양대 혁명의 시기를 거쳐 유럽 대륙이 안정과 발전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이 시기 유럽인들은 구체제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을 겪었으며, 나폴레옹의 침략과 이어지는 복고체제와 이의 반전(1830년의 7월 혁명)을 경험하였고, 증기기관과 기차로 상징되는 일상 생활에서의 속도의 빨라짐, 그리고 점차 전 유럽에서 일반화되고 분명해져 가는 산업혁명과 산업화를 경험한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마침내 19세기 중반, 영국과 북유럽을 제외한 전 유럽에서 쫓겨한 1848 혁명으로 그 정점에 달하게 된다. 이는 변화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시간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대변환을 통하여 사람들은 전체 정치적, 사회적 경험공간(Erfahrungsraum)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sup>25)</sup> 즉 코젤렉은 여기에서 '경험'과 '기대'라는 두 범주를 교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각기 과거와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두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정 속에서의 구체적 행동단위들을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세대 내부의 경험공간이 터져 나온 그곳에서 모든 기대는 불확실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의해 자극받게 된다.<sup>26)</sup>

보'편에서 첫 부분을 고대와 중세로 나누고, 두 번째 중심부는 칸트와 헤겔로 구성되는 18세기 진보개념과 19세기 진보개념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등 현실 집필에서는 이러한 삼분 형식이 정확히 적용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 준다.

23) Koselleck, R.(1982),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and 3, Vorwort, V.

24) Koselleck, R., Einleitung, XV.

25) Koselleck, R., "Begriffsgeschichte und Sozialgeschichte," p.112.

26) Koselleck, R., "'Erfahrungsraum' und 'Erwartungshorizont'—zwei historische Kategorien," Koselleck, R., *Vergangene Zukunft*, p.361.

이러한 경험과 기대 사이의 긴장은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이후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된다. 코젤렉에 따르면, 근대에 이르면 경험과 기대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 가며, 이러한 기대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경험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즉 근대(Neuzeit)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험과 기대라는 두 인식범주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 시간을 인식하고, 근대의 탄생을 이전 시대들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드러나는 경험과 기대 사이의 비대칭성을 진보가 동반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기본개념> 사전을 위한 하나의 전제는 18세기 이후 정치-사회적 언어들(Sprache)에 있어, 그리고 이들 단어들(Worte)의 일상적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그 이후를 하나의 '새로운 시대(neue Zeit)'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변화와 가속의 동반효과들이 옛 의미세계를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경험도 함께 변화했다. 오늘날 여전히 남아 있는 지형의 과거 의미내용들은 역사적 방법으로 파악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야만 한다. 그러한 과정들은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접근 틀을 전제로 하며, 오로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번역이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서 본인은 소위 '자텔차이트'라는 작업분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인식론적 전제로서의 특성은 본인이 대단히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으며, 전근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상의 변화들을 테마로서 다룬다.<sup>27)</sup>

특히 그가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시대의 특징은 운동성이다:

사회-정치적 단어들에 갖는 공통의 요소는 이들 속에서 운동요소들이 점점 범위를 넓혀 가며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이론적 가설을(즉 자텔차이트라는 용

어-필자)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유용한가는 운동개념 자체가 테마인 일련의 표제어들, 예를 들면 '진보', '역사', '발전' 등과 같은 항목에서 드러난다....이는 아주 강력한 매력이 있는데, 다른 단어들, 즉 정치적 언어의 오래된 개념들도 점차 그것이 갖는 잠재적인 운동특징들을 통하여(우리가)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다.<sup>28)</sup>

즉 그에 따르면, 특별한 시대공간을 드러내는 이론적 가설인 '자텔차이트'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특정한 방식의 독법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하여 사전이 단순한 실증주의적 사실들을 모아 놓는 차원에서 '개념사'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근대와 근대 이전시기를 분리시키고 구조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 개념적 가정이 모든 단어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텔차이트'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1960년대 코젤렉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며, 그의 제안 이후 지금까지 역사학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서 사회적 문화적 변혁의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코젤렉의 '자텔차이트' 개념을 상세히 소개한 박근갑은 자신의 논문에서 'Sattel', 즉 말안장이라는 표현을 두고 "말을 몰고서 정복 전쟁에 나서는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절묘한 비유"라고 설명한다.<sup>29)</sup> 실제로 말안장이 상징하는 운동성은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며, 공간적으로는 이동을 표상함으로써, 코젤렉이 강조하는 시대의 상징으로서의 운동성과 가속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Sattel'에는 말안장이 외에 다른 의미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두 개의 산 정상 사이에서 양 쪽을 연결시키는 협곡(Paß)의 의미이다. 이 곳은 두 개의 마주보는 산이 아래 부분에서 맞닿게 되는 안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동시에 양 정상을 연결하는 가장 높은 연결선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코젤렉적 의미에서 중세 이

27) Koselleck, R.(2000), "Über die Theoriebedürftigkeit der Geschichtswissenschaft," Koselleck, R., *Zeitschichten. Studien zur Historik*, Frankfurt/M. p.302.

28) Koselleck, R., "Über die Theoriebedürftigkeit der Geschichtswissenschaft," p.303.

29) 박근갑, 2009, "말안장 시대의 운동개념",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33쪽.

후 근대로의 시기를 연결하는 전환기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자텔 차이트를 ‘말안장의 시대’ 대신 ‘협곡의 시대’로 번역한다 해도 과히 틀린 해석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Sattel’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되던, 우리가 코젤렉의 개념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용어로서 이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Sattel’을 말안장으로 번역하든 혹은 협곡으로 번역하든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닐 성 싶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개념이 진행된 1800년 전후 50년의 시기를 독일의 경계를 넘어 유럽 전반으로 일반화시킬 일도 아니다. 실재로 그는 스페인 역사가들과의 한 인터뷰에서 ‘Sattel’이 갖는 이 양의 의미를 모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 적이 있다:

‘자텔차이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은 그 용어가 내가 만들어 낸 것이며, 더 많은 이슈들을 팔고자 <역사적 기본개념>의 상업적 광고를 위해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성공하여 사전에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이 수 있어 행복했지만, 내가 특별히 그 용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것이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Sattel’ 의미의 하나는 말, 승마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 그곳으로부터 넓은 시야를 조망할 수 있는 경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에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라도 시간의 가속이라는 근대세계 내에서의 경험의 결정적 측면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텔차이트는 대단히 흠이 있는 용어이다(a very deficient term).<sup>30)</sup>

코젤렉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 개념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um Geld zu bekommen”) 만든 인위적 개념이었다면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결코 이를 이론

30) “Conceptual history, memory, and identity: An interview with Reinhart Koselleck”(2006),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2, pp.99~127([http://www.scribd.com/doc/38837758/Contributions-Interview-With-Koselleck#open\\_download](http://www.scribd.com/doc/38837758/Contributions-Interview-With-Koselleck#open_download)).

적 요구와 연결시킬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sup>31)</sup> 실제로 그의 1980년대 이후의 개념사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텔차이트라는 표현이 거의 사라지고,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좀 덜 은유적이고 보편적 표현인 ‘Schwellenzeit’, 즉 ‘문턱시대’라는 용어로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각 국가마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대로의 진입시기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영국의 경우는 영국혁명이나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 시기를 겪었으며, 결국 이 가설의 도입은 어떻게 역사를 파악하는가라는 방법론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코젤렉과 그의 동료들은 실제의 서술을 통해 자텔차이트를 어떻게 드러내었는가?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개념사 사전 중에서 코젤렉의 의도를 가장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단연 ‘진보’와 ‘문명과 문화’이다.

진보라는 표현 자체가 18세기 후반의 역사적 움직임, 변화와 관련되면서 ‘역사’ 개념과 동시에 자리잡게 되었고,<sup>32)</sup> 그 속에 이전의 전진(Progress)이나 진전(Fortgang)이라는 표현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역동성이 담겨 있음으로 자텔차이트를 드러내기엔 더 없이 적절한 표제어인 셈이다.

이 항목의 서문은 코젤렉이, 그리고 (짧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서의 진보 개념은 독일의 저명한 고대사 전공자인 크리스티안 마이어(Christian Meier)가 집필하였고, 다시 중세부터 마지막 전망까지는 코젤렉이 집필하였다.<sup>33)</sup>

우선 코젤렉은 서문에서 자신의 분석의 과제를 “진보라는 유동적 범주의 생성과 유래를 해명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진보’의 근대적 의미를 부각시키

31) “Begriffsgeschichte, Sozialgeschichte, begriffene Geschichte. R. Koselleck im Gespräch mit Christof Dipper”(1998), *Neue Politische Literatur*, 43, pp.187~205 중 p.195.

32) 라인하르트 코젤렉, 크리스티안 마이어, 2010, 『진보』,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푸른역사, 13쪽 이하.

33) 크리스티안 마이어(1929~ )는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인 *Entstehung des Begriffs ‘Demokratie’* (Frankfurt/M. 1970)의 저자이다.

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이 개념의 어원과 이의 시대에 따른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진보’ 개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움직임, 개념이 갖는 역동성, 이데올로기적 역할 등을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sup>34)</sup>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초역사적이고 중립적 개념으로 쓰였던 ‘진보’는 근대로 들어서면서 종교적인 진보에서 세속적인 진보로 대체되었고,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성찰이 증가하면서 진보는 역사적인 시간, 그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즉 전근대적인 역사적 시간경험의 정적인 상태가 무너져야 비로소(시간화) ‘진보’가 드러나게 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역사가 항상 똑같았다는 생각은 이때 (칸트, 필자) 이후로 앞으로의 역사가 완전히 다를 것이고, 더구나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이의 제기가 더 이상 되지 못했다. 역사가 일회적이고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며 자신을 추월한다는 이 새로운 인식은 진보 의식을 매개로 이루어졌고, 이 진보 의식은 구세계의 위기를 통제가 가능한 열린 미래로 옮기고자 했다.<sup>35)</sup>

코젤렉의 ‘기대지평’ 개념에 의거하여 설명하자면, 종교개혁 이전 세대에 있어 경험공간은 세계의 종말을 지향했지만, 이 묵시론적 기대는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일종의 자연적 순환과 같은 것이었다. 즉 “기독교적 기대와 세속적 경험 사이의 모순성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서로 관련을 맺은 채 유지된다.”<sup>36)</sup>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기대지평이 열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전래되어 온 경험적 공간과 이제까지 거기에서 유도된 기대지평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경험과 기대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34) 라인하르트 코젤렉, 크리스티안 마이어, 앞의 책, 13쪽.

35) 라인하르트 코젤렉, 크리스티안 마이어, 앞의 책, 80쪽.

36) Koselleck, R., “‘Erfahrungsraum’ und ‘Erwartungshorizont,’” p.362.

이 차이가 비로소 ‘진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3세기간의 새로운 경험들이 조밀하게 결집되면서, 18세기 말경 비로소 생겨난 현상이었다. 역사적 흐름 안으로 들어온 기대지평이 역사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코젤렉은 진보를 통해 겪게 된 새로운 경험들의 예로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서서히 등장하는 기술, 신대륙의 발견, 다양한 단계로 발전하며 사는 민족들, 혹은 산업과 자본을 통한 신분세계의 해체 등을 열거한다. 이 모든 경험들이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Gleichzeitigkeiten von Ungleichzeitigem)’, 혹은 ‘동시대 안에 있는 비동시성’을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진보 개념과 역사 개념은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진보란 곧 역사적 움직임을 의미하였고, 진보가 개념화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적 시간이었으며, 개별적 진보의 역사가 모여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역사가 일회적이고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며, 자신을 추월한다는 이 새로운 인식은 진보의식을 매개로 이루어졌고, 이 진보 의식은 구세계의 위기를 통제가 가능한 열린 미래로 옮기고자 했다.<sup>37)</sup>

다른 한편, 미래에 대한 변화에의 기대는 경험에 대한 희망을 점점 가속시키며, 이에 따라 근대 초기의 경험들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라이프니츠, 루소, 칸트가 볼 때는 역사가 진행되어 온 속도 자체의 가속화였고, 미래로의 진보의 가속화였다. 그리고 19세기, ‘진보 자체’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게 되고, 누구도 세상이 진보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면서, 진보는 일종의 상투어로 변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명이 지속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다시금 진

37) 라인하르트 코젤렉, 크리스티안 마이어, 앞의 책, 80쪽.

보에 의해 희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경험만으로는 신앙에 가까운 진보에의 확신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즉 1848년 혁명 등, 진보에 대한 믿음이 '사상적 경향이 강한 행동주의'로 나타났고, 점차 자발적 자기 확신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세속 종교화되어 가는 것이다:

봉건적 절대 왕정에서 모든 진보는 명약관화하게 불법이어서 혁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혁명이 비로소 순수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전진하는 합법적 진보의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sup>38)</sup>

승리를 확신했던 진보에 대한 믿음은 1900년 전후, 늦어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삶의 질에 대한 성찰과 기술적 진보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계속 가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자각으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다시금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쳐 진보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코젤렉이 진보를 바라보는 전망은 비관적이다. 20세기 이후 시작된 이러한 관점의 교체는 다시금 진보 개념을 중립화하도록 만들었고, 기술화, 현대화, 산업화로 대변되는 진보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파악한다. 진보의 위기는 진보라는 개념 자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고 그는 판단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의 여정을 위하여 마이어와 코젤렉이 동원한 사료들로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나 투키디데스의 저서에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 벤야민, 아도르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고전에 속하는 책들이었다. 또 그 밖에도 18세기 달랑베르(D'Alembert) 등 백과사전 학파와 1838년 <브룩하우스 백과사전>에서의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진보의 찬양, 18세기에 출간된 언어학 사전, 당대인의 편지, 1848년 혁명을 증언하는 텍스트들, 그 밖의 각종 선언문, 당대의 신문, 잡지들이 폭넓게

38) 라인하르트 코젤렉, 크리스티안 마이어, 앞의 책, 126쪽.

인용되었다.

'역사' 및 '진보' 개념과 결부되어, 이 개념들과 함께 근대의 운동적 성격을 부여받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개척한 또 다른 근대적 개념은 '문화/문명(Kultur/Zivilisation)'이다. <역사적 기본개념> 편집위원으로서 개념사 사전 기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외르크 피쉬(Jörg Fisch)는 '문명과 문화'를 코젤렉의 개념사 기획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문명과 문화' 개념이 18세기 후반 현대적 의미로 확장되고 운동적 성격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역사'나 '진보' 등의 개념과 결부되어 역동성을 부여받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고전 라틴어에서 농경 활동을 가리키던 문화는 점차 제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윽고 교양과 학문영역을 넘어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성된다.<sup>39)</sup>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보고 그것을 신학적 전통으로부터 떼어 내어 생각하고 그 흐름에 의미를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간 특유의 업적을 개념화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필요성 또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철학은 문화개념의 자식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개념이 점점 더 역사철학적 체제진술의 한 기능으로 바뀐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운동개념으로서의 특수한 성격이 드러난다. 이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문화 업적들을 포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업적들을 시간적 시각 안에 세워 놓는다. 그리고 이 시간적 시각 안에서 이 개념의 대상은 비로소 그 고유한 의미를 얻게 된다. ...출발점은 프랑스에서처럼 개인적 정신문화와 교양이었다.<sup>40)</sup>

39) 외르크 피쉬, 2010, 『문명과 문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푸른역사, 13쪽. '문명과 문화' 외에도 '제국주의'의 서문을 쓴 외르크 피쉬(1947~)는 콘페의 지도 하에 개념사를 주제로 <Krieg und Frieden im Friedensvertrag: Eine universalgeschichtliche Studie über Grundlagen und Formelemente der Friedensschlusses>을 197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40) 외르크 피쉬, 앞의 책, 84쪽 이하.

피쉬는 서론에 이어 로마, 중세를 거쳐, 16, 17세기부터는 19세기까지는 매 세기별로,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 시기와 마지막 전망 등 비교적 촘촘한 시대구분을 통해 문화와 문명 개념의 변화과정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16세기 이후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권에서 출간된 일반사전과 언어사전을 통해 문화와 문명이 각기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피쉬는 그렇다고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대상 영역 자체가 근대적 개념의 형성과 함께 처음으로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의 모든 양상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사유되어 왔다. 다만 이들은 다른 관련성과 다른 개념들 하에서 사유되고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즉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다양한 대상영역들이 문화라는 개념 속으로 복잡하게 요약되었고, 비로소 포괄적이고도 독자적인 단위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41)</sup>

문화와 문명이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 그 규범적인 양상이나 기술적인 양상에서 서로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 문화와 문명이 18세기 후반, 서로 일치하는 기본 특징들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단지 언어사적 우연이며, 이러한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기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 즉 서구문명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의 쇠퇴는 이 양 개념의 분리와 대립으로 나타난다. 진보의 위기는 문화와 문명의 위기로 이어지며, 물질적 발전과 기술에 대한 회의가 증대한다. 이 양 개념의 분리 경향은 “문화는 민족적이고 비정치적인 그 무엇이고, 이에 반하여 문명은 국제주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는데,<sup>42)</sup> 즉 ‘유럽 문명의 수호자’나 ‘독일 문화’라는 용법에서처럼 문명은 유럽 공통적인 것임에 비하여 문화는 국민국가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단지 독일만의 현상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

런 면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발점은 달랐지만 발전과정은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쉬의 서술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 간의,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입장과 시대에 따라 ‘문화’와 ‘문명’이 다양한 개념과 용법으로 통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쉬의 표현대로 “문화가 문명을 희생시킨 채 점점 더 확고한 기반을 굳히게 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기에는 근대 이후 ‘문화’와 ‘문명’이 포함하는 개념의 내용이 서유럽 국가마다 너무도 다양하고 포괄적이었음을 이 항목은 우리에게 알려 준다.

#### 4. 전망

다양한 평자들에 의한 여러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코젤렉의 <역사적 기본개념> 사전은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무엇보다 선택된 표제어들이 주로 독일어 사용권의 어휘와 개념들에 집중됨으로써 이들만으로 유럽 일반의 역사적 개념형성의 보편적 과정을 조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선택된 120여 개의 표제어들이 주로 정치, 사회적 개념들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생활 속의, 혹은 문화/예술 개념들 속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어 내기는 힘들다. 아울러 기획의 의도가 주로 1750~185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하면서 20세기 이후 생겨나는 개념 변화는 공통적으로 ‘전망’이라는 종장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20세기 전반기 개념변화에 대한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sup>43)</sup>

41) 외르크 피쉬, 앞의 책, 13쪽.

42) 외르크 피쉬, 앞의 책, 187쪽 이하.

43) 사전은 총 119개의 표제어를 109명의 저자로 나뉘어 집필되었다. 그중 콘제와 코젤렉이 전체 원고의 약 10~12%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원고의 편집과 교정을 통해 보충한 부분을 합치면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디퍼(Christof Dipper)는 판단한다. 오

한림과학원에서 기획, 출간된 문명과 문화, 진보, 제국주의, 전쟁, 평화 등 다섯 권의 개념사 항목이 정치-사회사적 주요 개념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 이들이 코젤렉이 제시했던 기본 개념들의 특성들을 고루 갖춘 항목들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다섯 개념의 형성과 역사를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낼 어떤 공통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섯 권 중 코젤렉의 ‘자텔차이트’라는 지표가 서술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연구는 ‘진보’와 ‘문명과 문화’이다. 세 필자로 구성된 ‘제국주의’ 항목의 경우,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국주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의식도, 공통의 접근법도 찾기 힘들다.<sup>44)</sup> 빌헬름 얀센(Wilhelm Janssen)에 의해 쓰여진 ‘전쟁’과 ‘평화’ 두 권은 거의 코젤렉의 ‘기본지침’과는 독립하여 ‘전쟁’과 ‘평화’ 개념의 사회적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토 브룬너는 알려져 있다시피 저명한 중세사가로서 시기적으로 <역사적 기본개념>이 지향하는 소위 ‘자텔차이트’와는 거리가 있었다. 실제적으로도 그의 역할은 주변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역사적 기본개념>에 기고한 글도 ‘봉건주의(Feudalismus)’ 하나 뿐이었으며, 나머지 거의 모든 작업은 사실상 코젤렉과 콘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콘제가 주로 사회사, 구조사와 관련된 문제들, 즉 귀족, 노동자, 농민, 중산층, 프롤레타리아 등 사회적 계층/계급에 관심을 갖고 저술한 반면, 코젤렉은 근대/근대성의 시초를 개념화시키는 작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진보, 해방, 위기, 혁명 등의 표제어를 채워 나간다. 디퍼는 이를 정리하여 콘제와 코젤렉의 제자들이 서술의 약 50~55%, 테오도르 슈더(Theodor Schieder)와 칼 슈미트(Carl Schmitt) 주변 인물들이 10~15%를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학파적 집단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만의 어떤 학문적 공통성이나 동질성을 이들의 글들로부터 찾기는 어렵다. 멜빈 릭터, 앞의 책; Dipper, Christof(2000), “Die ‘Geschichtlichen Grundbegriffe’. Von der Begriffsgeschichte zur Theorie der historischen Zeiten,” *Historische Zeitschrift* 270/2000, pp.281~308 참조.

44) 외르크 피쉬, 디터 그로, 루돌프 발터, 2010, 『제국주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3, 푸른역사. 이 책의 중심 부분을 맡은 디터 그로(Dieter Groh)는 개념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제국주의의 사회사를 기술했다. 20세기를 맡은 루돌프 발터(Rudolf Walther)는 1978~82년 코젤렉 개념사 사전 편집위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곧 출간될 한림대학교 개념사 사전 시리즈 열 여섯 항목들은 정치, 사회적 변혁의 진행이 역사현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핵심적 항목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특히 ‘노동/노동자’(Werner Conze)와 ‘역사’(Reinhart Koselleck), ‘근대/근대성’(Hans Ulrich Gumbrecht) 항목은 그 자체로서 이미 탁월한 한편의 모노그래피로 학계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번역이 직접적으로 우리 학문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출간으로 우리는 코젤렉, 콘제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집단의 작업 가설과 기획의도, 그 반영의 강도까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역사가나 인문 사회과학자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작가, 저널리스트, 나아가 지식인 사회 전체에 걸쳐 기본 개념의 결핍을 충족시켜 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전, 코젤렉에 의하여 ‘역사는 하나의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실재’라는 근대 역사학의 기본가정이 부정되고, 다양한 시간적 지속과 상이한 내용을 갖는 여러 차원의 역사적 실재들로 해체된 이후,<sup>46)</sup> 역사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을 포함한 서구 학계의 개념사적 연구가 새롭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연구상의 새로운 성과를 쏟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만큼 이미 학문적으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 왔다.<sup>47)</sup>

현재는 개념사 초기의 여러 방법론적 모색과 모방을 벗어나 각 국가마다

45)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차 번역은 모두 16개 항목 ‘계몽’, ‘해방’, ‘역사’, ‘위기’, ‘근대/근대성’, ‘혁명’, ‘개혁’, ‘사회주의’, ‘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무정부주의’, ‘독재’, ‘노동/노동자’,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출간을 위해 준비 중이다.

46) 나인호, “독일 개념사와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174, 293~328쪽, 특히 323쪽.

47) 대표적으로 Lehmann, Hartmut/ Richter, Melvin (eds.) (1996), *The Meaning of Historical Terms and Concepts: New Studies on Begriffsgeschichte*, Washington; Kanerva, Jukka/Palonen, Kari (eds.) (1987), *Transformation of Ideas on a Periphery: Political Studies in Finnish History*, The Finn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 6.

자신들의 역사와 학문적 전통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개념사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우리에게도 개념사와 관련된 학문적 시도는 이제 그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근대적 학문이 우리에게 수입된 이후 지금까지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한 개념사적 파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작업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소통과 관련된 새로운 실마리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면 이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큰 꼭 필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개념사 속에 '자텔차이트'는 어느 시기인가? 이를 드러내고, 시간적 흐름 속에 계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개념사 연구가 우리 학문풍토에서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한국에서의 개념사 연구가 갖는 어려움을 하영선은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개념사는 단순히 개념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념사는 우리가 겪는 현실과 개념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이다. 더구나 한국의 개념사는 국제전과 국내전의 이중적 싸움을 거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더 복잡했다.”<sup>48)</sup>

개념이란 대부분 분명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와 측면들이 혼재되어 있다. 개념이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개념 속에 역사적 과정이 들어가 내용을 만듦을 의미한다. 모든 개념 속에는 자기만의 오래된 구조와 경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언어적, 사회, 경제적, 정치적 배경들을 분석하고 밝혀내는 가운데, 우리는 개념의 역사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8) 하영선 외, 앞의 책, 9쪽.

##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Brunner, Otto/ Conze, Werner/ Koselleck, Reinhart(Hg.)(1972~1997),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8 Bde. in 9 Teilen, Stuttgart.
- Koselleck, R.(1967), “Richtlinien für das Lexikon politisch-sozialer Begriffe der Neuzeit,”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11/1967
- \_\_\_\_\_(1989), *Vergangene Zukunft*, Frankfurt/M.
- \_\_\_\_\_(2000), *Zeitschichten. Studien zur Historik*, Frankfurt/M.
- \_\_\_\_\_(2006), “Hinweise auf die temporalen Strukturen begriffsgeschichtlichen Wandels,” *Begriffsgeschichten*, Frankfurt/M.
- \_\_\_\_\_(2010), *Vom Sinn und Unsinn der Geschichte. Aufsätze und Vorträge aus vier Jahrzehnten*, Berlin.
- “Conceptual history, memory, and identity: An interview with Reinhart Koselleck,”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2, 2006.
- “Begriffsgeschichte, Sozialgeschichte, begriffene Geschichte. R. Koselleck im Gespräch mit Christof Dipper,” *Neue Politische Literatur*, 43, 1998, pp.187~205.

### 2. 2차 자료

- 나인호, 2002, “독일 개념사와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174.
- \_\_\_\_\_,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 릭터, 멜빈,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소화.
- 박근갑 외, 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 코젤렉, 라인하르트, 크리스티안 마이어, 2010, 『진보』,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푸른역사.

피쉬, 외르크, 2010, 『문명과 문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푸른역사.

피쉬, 외르크, 디터 그로, 루돌프 발터, 2010, 『제국주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3, 푸른역사.

하영선 외, 2009,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Dipper, Christof(2000), "Die 'Geschichtlichen Grundbegriffe'. Von der Begriffsgeschichte zur Theorie der historischen Zeiten," *Historische Zeitschrift* 270/2000, pp.281~308.

## Abstract

# Between Academic Theory and Lexical Practice of Conceptual History

Jinil Lee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 **Key Word** : conceptual history, Koselleck, dictionary of historical concepts, progress, culture & civilization

In the last few years, a number of German historians have become aware of 'History of Concepts'(Begriffsgeschichte). Modern 'History of Concepts' emerged in contrast to a history of events and politics, which oriented merely toward a chronological series of events. Its most influential advocate are Otto Brunner, Werner Conze and Reinhart Koselleck in Germany. They edited the *Historisches Lexikon*, consist of 6 Volumes with articles on ca. 120 'Grundbegriffe' from 1972 to 1997, nearly a quarter century.

In them was Reinhart Koselleck the most exponent and pioneer of this school. He studies a methodology of historical concepts, whose major work combines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history.

In his programmatic introduction, Koselleck defines the subject of the *Lexikon* as "leading concepts of historical movements which, in the course of time, are

the subject of historical research”. Begriffsgeschichte deals with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interpretation of words and lead concepts of historical movement.

His central concept is the change and progress of modernity through the ‘Sattelzeit’. These hypotheses are merely heuristic anticipations. Koselleck characterized in this concept sometime between 1750 and 1850, a modern phase, which the European begins to transform the society, to develop the technology revolutionary. This period achieves cultural renaissance and most important meanings especially of those ‘History of Concepts’. We can verify Koselleck’s hypotheses clearly through the Begriffsgeschichte of ‘progress’ or ‘culture/civilization’.